24세 괴물 거포, 77년만의 NL '트리플 크라운' 해낼까?

〈타율·홈런·타점 1위 달성〉

손건영통신원의 네버엔딩스토리 | 마이애미 지안카를로 스탠튼

타격에 있어서 '트리플 크라운'은 타율, 홈런, 타점에서 1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아메리칸리그)의 미겔 카브레라는 역대 18번째로 타격 트리플 크라운의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내셔널리그에서 타격 트리플 크라운이 나온 것은 193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조 메드윅이 마지막이다. 무려 76년이나 명맥이 끊겼던 내셔널리그에서 올 시즌 트리플 크라운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마이애미 말린스의 강타자 지안카를로 스탠튼(24)이다.



193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조 메드윅 이후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셔널리그 타격 3관왕. 76년이나 명맥이 끊겼던 트리플크라운을 위해 마이애미 말린스의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도전한다. 현재로서는 가능해보인다. 4월30일(한국시간) 애틀랜타와의 홈경기에서 2점홈런을 날린 스탠튼(오른쪽)이 동료 에드 루카스의 환영을 받으며 홈을 밟고 있다. 마이애미(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스무살에 빅리거 되자마자 첫 홈런이 만루포
140m대 비거리에 타구 스피드 197km '괴력'
지난해 부상에 주춤…올시즌 홈런·타점 선두
2017년 FA 자격 획득…몸값 올리기 구슬땀
세인트루이스·보스턴 등은 벌써 물밑작업 중

●완벽한 하드웨어

키 6피트6인치(198cm), 몸무게 240파운드(109kg)의 뛰어난 체격 조건을 지닌 스탠튼이 타석에 들어서면 상대 투수들이 위압감을 느낀다. 실투가 나올 경우 엄청난 파워가 실려진 타구는 펜스 너머로 까마득히 날아가기 일쑤다.

1989년 LA 인근 파노라마시티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와 풋볼에서 스타로 군림했다.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명문 대학들의 스카우트 공세를 뿌리치고 2007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78번째로 자신을 선택한 플로리다 말린스와 입단 계약을 했다.

괴력의 장타를 앞세운 그에게 마이너리그 무대는 너무 좁았다. 그를 상대한 미시시피 브레이브스의 필 웰먼 감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탠튼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15살짜리가 8살짜리 꼬마들 틈에 섞여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2010년 5월 7일 몽고메리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탠튼은 전광판을 넘기는 초대형 홈런포를 터뜨렸다. 비공식이지만 홈런 비거리가 500피트(152m)를 훨씬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약관의 나이에 데뷔하다

스탠튼이 마이너리그를 완전히 평정하자 말린스 구단은 2010년 6월 7일 그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시켰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세 212일로 말린스 구단 역사상 에드가 렌테리아(19세 267일), 미겔 카브레라(20세 67일)에 이어 3번째로 어린 나이에 메이저리그로 승격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데뷔전부터 5타수3안타 2득점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탠튼의 빅리그 첫 홈런은 6월 19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나왔다. 우완 강속구 투수 매트 가자를 상대로 만루홈런을 폭발시켜 호세 레예스(2003), 앤드루 존스(1997), 알렉스 로드리게스(1996)에 이어 만 21세가 되기 전 만루홈런을 터뜨린 네 번째 선수가 됐다.

빅리그 첫해 100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무려 22개의 홈런을 때린 스탠튼은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선정한 루키 올스타팀의 우익수로 뽑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친 홈런의 평균 비거리가 399.6피트(128m)나 됐다는 점이다. 또한 홈런 타구의 스피드는 무려 104.3마일(168km)로 빨랫줄 같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로 아치를 그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괴력의 장타자

빅리그 2년째인 2011년에도 스탠튼의 홈런포는 더욱 불을 뿜었다. 150경기에 출전해 516타수에서 34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87타점을 기록했다. 그해 시티필드(142m), 내셔널스파크(139m), 쿠어스필드(145m), 선라이프스타디움(142m) 등 4곳에서 최장거리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2012년 5월 22일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스탠튼은 당시 최고령 투수 제이미 모이어를 상대로 462피트(141m)짜리 대형 만루홈런을 뽑아냈는데 타구 스피드는 무려 122.4마일(197km)이나 나왔다. 이는 ESPN이 '홈런 트래커'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가장 빠르게 측정된 것이었다. 생애 첫 올스타로 선정된 스탠튼은 홈런 더비에도 출전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올스타전 직전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라 아쉬움을 남겼다. 부상을 극복하고 후반기에도 맹타를 휘두른 스탠튼은 8월 18일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94피트(148m)짜리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2009년 이후 메이저리그 최장거리 홈런이었다.

2012년 37개의 홈런을 친 스탠튼은 라이언 브론에 이어 내셔널리그 2위를 차지했다. 훗날 드러난 것이지만 약물 복용을 한 브론이 아니었다면 23살의 나이에 내셔널리그 홈런왕의 영예를 안을 뻔했다.

●파워에 정교함까지 더하다

지난 시즌은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두 달이나 경기에 나서지 못한 탓에 타율 0.249, 24홈런, 62타점으로 시즌을 마쳤다. 그나마 6월 18일 경기에서 통산 99번째와 100번째 아치를 그려 메이저리그에서 9번째로 어린 나이에 100번째 홈런을 돌파한 주인공이 됐다는 점이 위안거리였다.

지난해 연봉 53만7000달러(5억4000만원)를 받는데 그쳤던 스탠튼은 연봉조정을 통해 올 시즌에는 650만달러(65억원)로 껑충 뛰었다. 2017년에야 FA 자격을 얻게 되는 스탠튼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말린스 구단과 장기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가를 최대한 스스로 끌어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 노력의 결실은 2014시즌에 꽃을 피우고 있다. 28일(한국시간) 현재 15개의 홈런으로 내셔널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타점(49)에서는 2위인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38)와 11개 차로 독주하고 있다.

문제는 타율이다. 스탠튼의 통산 타율은 0.270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정교함을 더해 0.316으로 선전하고 있다. 4할대를 넘던 툴로위츠키의 타율도 0.373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타격 3관왕의 꿈을 노려볼 만 하다. 볼넷도 29개를 얻었는데 그 중 무려 9개가 고의 4구일 정도로 상대 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덕분에 출루율도 0.404로 내셔널리그 6위에 올라있다.

지난 스프링캠프부터 스탠튼을 트레이드로 영입하기 위한 몇몇 구단들의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가장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구단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스탠튼이 앨버트 푸홀스에 뒤지지 않는 슬러거로 손색이 없다는 자체 평가로 가장 탄탄한 팜시스템에서 배출한 유망주를 앞세워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레드삭스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데이비드 오르티스를 대체할 적임자로 스탠튼을 꼽고 있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배드민턴 지역밀착형 주말리그 꼭 정착시킬 것"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전무 역설
리그제 향한 첫단추 구미 코리안리그
기업팀 확충·관중유도·TV중계 모색

"배드민턴인들의 희망인 지역밀착형 주말리그를 정착하고 싶다."

2014 배드민턴코리안리그(이하 코리안리그)가 열린 28일 경북 구미의 올림픽기념관.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겸 코리안리그 조직위원회 임원장은 빨갛게 충혈된 눈을 연신 비벼대며 배드민턴 주말리그제 도입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리그 도입을 위해 처음 시도된 게 바로 코리안리그다. 1~2차대회 및 결선(파이널즈)을 갖고 남녀부 최종 우승팀을 가른다. 종별 단일대회를 벗어나 리그제를 운영하기는 처음이다.

리그제는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국배드민턴의 발전과 선수들의 이권 신장 및 배드민턴 저변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시작단계인 만큼 과제는 수두룩하다. 메인 스폰서를 구해야 하고, 60%를 웃도는 관공서 팀들의 성공적인 프로 전환도 이끌어야 한다. 김 전무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단계적으로 실행·검토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부딪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그제 도입에 앞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1,2차대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연말 결선에서는 확실히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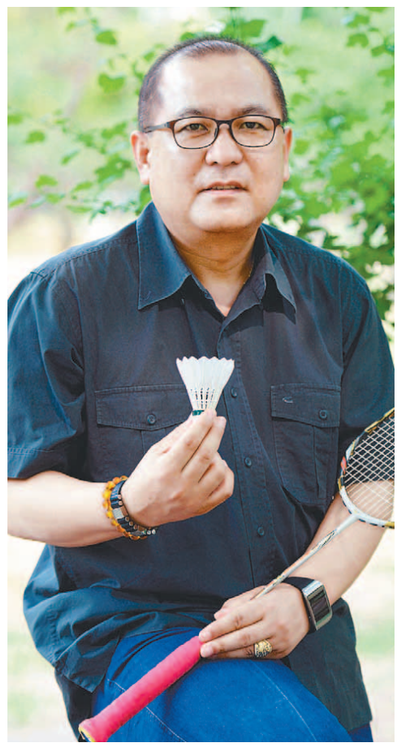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된다. 관공서 팀들이 기업구단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스카이몬스(인천국제공항공사)로, 창원시청은 포스코특수강으로, 당진시청은 MG새마을금고로 다시 태어났다. 성남시청은 재 창단했다.

대회 방식도 달라졌다. 단체전으로 펼쳐지는 코리안리그는 2복식과 1단식 총 3게임으로 진행된다. 종별대회가 2복식, 3단식의 5게임으로 구성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유가 있다. 경기 시간을 줄이면서 관중 유도와 TV 중계권을 따내겠다는 것이다. 김 전무는 "프로는 선수나 구단 모두 원하는 방향이다. 지역마다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있을 만큼 활성화돼 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이 밀착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수들에겐 경기수당도 지급하고 외국인선수도 도입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자부 첫 경기에서는 고양시청이 성남시청을 2-1로 꺾고 첫 승을 올렸다. 여자부에선 김천시청과 시흥시청이 각각 포스코와 전북은행을 2-1로 이겼다.

구미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배드민턴의 지역밀착을 위한 주말리그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구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진종오 한화회장배 사격 2관왕 명중



'권총황제' 진종오(35·kt·사진)가 한화회장배 2관왕에 올랐다.

진종오는 28일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7회 한화회장배 전국사격경기대회 첫날 50m 권총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본선을 1위(561점)로 마친 뒤 결선에서도 압도적 실력을 발휘했다. 196.2점을 기록하며 2위 김영욱(IBK기업은행·187.1점)을 무려 9.1점 차이로 제쳤다. 이대명(KB국민은행)은 169.4점으로 3위에 올랐다. kt는 진종오, 한승우(557점), 강경탁(555점)의 활약에 힘입어 합계 1673점으로 단체전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진종오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9월 그라나다세계선수권과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 진종오는 1·2·3차 선발전 50m 권총 남자 합계 1위를 달리며 인천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한편 공기소총 남자일반부에선 김대선(경기도청)이 207.8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김상도(kt·206.5점)와 한진섭(한화갤러리아·185.1점)은 각각 2·3위에 올랐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일시 귀국한 박태환 "세계기록은 내 영원한 목표"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인천시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사를 초청해 진행한 프레스투어에 참석해 "세계기록을 영원한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실패했지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마이클 볼(호주) 감독의 지도 아래 구슬땀을 흘리다 일시 귀국했다.

KPGA, 골프기록·정보 제공 공식 홈페이지 오픈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코리안투어의 공식기록업체인 씨앤피에스(C&PS)와 함께 골프기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http://stats.cnps.co.kr)를 열었다. 선수별 기록은 물론 비교 분석한 기록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상황별 코스 매니지먼트 및 코스 공략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 선수별, 계절별, 홀별, 라운드별 다양한 기록과 이에 따른 예측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안소현 KLPGA 점프투어 4차전 합계 9언더파 우승

안소현(1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점프투어 4차전(총상금 3000만원·우승상금 600만원)에서 우승했다. 안소현은 28일 충북 청원군 그랜드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9언더파 135타로 정상에 올랐다. 아마추어 이혜정(신평고3)은 합계 7언더파 137타로 2위에 올랐다.

매클로이와 결별 보즈니아키 프랑스오픈 1회전 탈락

'차세대 골프황제'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와 최근 파혼한 캐롤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세계랭킹 14위)가 28일(한국시간)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64위의 야니나 위크마이어(25·벨기에)에게 1-2(6-7 6-4 2-6)로 패했다. 보즈니아키가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것은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하용성 사무국장 모친상

대한배드민턴협회 하용성 사무국장이 28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례식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30일(금) 오전 5시. 연락처 031-780-6160.